

# 사회혁신의 이론적 고찰 : 개념의 유형화와 함의<sup>†</sup>

A Theoretical Approach to Social Innovation: A Conceptual Typology and Implications

정서화(Seohwa Jeong)\*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사회혁신론의 개념적 유형화 |
| II. 사회혁신론의 메타적 접근 | IV. 결론 및 함의         |

##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회혁신 연구를 메타적으로 접근해 사회혁신의 이론지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의 개념과 영역에 초점을 맞춘 유형화를 시도하여 이를 사회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사회혁신 및 관련정책에 있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에 따르면, 사회혁신은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환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공공혁신, 시장혁신, 사회적 경제혁신으로 세분화되어 전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혁신 영역별 행위자 특성과 역할에 따라 사회혁신 거버넌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 촉진자로서 정부역할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어 : 사회혁신론, 개념적 유형화, 메타접근, 서지계량분석, 사회혁신체제

※ 논문접수일: 2017.11.15, 1차수정일: 2017.12.01, 게재확정일: 2017.12.13

\*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 초청연구위원, jsh@kipa.re.kr, 02-2007-0617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ABSTRACT

---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a meta-theoretical investigation to explain the current theoretical landscape of social innovation theories and researches. First of all, this paper makes a typology of social innovation based on concepts and sectors of social innovation. Second, in terms of societal innovation, which it is a kind of social innovation systematic approach, this paper draws some implications for social innovation policy. My key argument is that social innovation could be specified in three different sectors, public innovation, market innovation, and social economy innovation. However, all of them have attention to such as improving a quality of life and making society more sustainable, so it can be argued that those different sectors are structured on social innovation altogether with common goals. Finally, in order to activate the social innovation ecosystem, the government has to play a key role as a facilitator to make sustainable networks and a governance of social innovation that is needed to coordinate between different features and roles of social innovation sectors.

Key Words : Theory of Social Innovation, A Conceptual Typology, Meta-Approach, Bibliometrics, Societal Innovation System

---

## I. 서론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 내세우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사회문제로 가득한 현장에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시민사회가 내놓는 다양한 해법과 적극적인 실천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을 불러오며 그에 따른 사회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협업을 강조하는 사회혁신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환(transformation)을 위한 목표 설정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tackling societal challenges)을 위해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Haxeltine et al., 2016a).

미국, 영국, 핀란드, 독일 등 세계 각국은 이미 산업, 공공서비스,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예를 들어 벤처 생태계에서는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디자인 싱킹’이나 사용자 피드백이 가능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린스타트업’ 방식으로 구현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가들의 움직임은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한편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하고 도시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 방식이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로 구현되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사회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을 증대시키며 연구개발의 성과의 확산과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 기반의 연구를 지향하며 문제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혁신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흐름 속에 각 영역의 연구자들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실험의 사례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사례위주로 진행되어 사회혁신의 개념, 혁신과정의 특성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정도로 다소 단편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어 사회혁신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직 사회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지만, 사회혁신을 새로운 방법론으로만 해석하여 생기는 단편적인 이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사회혁신을 단순히 혁신성 측면에 초점을 두어 ‘최종사용자와 시민의 의견수렴’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서비스 혁신으로 축소되어 사회혁신의 본질인 민주성(democracy)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사회혁신의 이론적 작업들을 묶어 사회혁신의 이론지형을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개념적 유형화를 시도해 사회혁신론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제까지 출판된 사회혁신의 이론적 연구를 메타적으로 접근하여 사회혁신 이론의 주요 흐름과 특성을 서술한다. 다음으로 이를 사회혁신의 목표, 층위,

영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혁신론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끝으로 이를 사회혁신체제(societal innovation system) 관점에서 조망하여 사회혁신의 구조에서의 영역별 특징을 도출했다. 이는 전 세계에 확산 중인 사회혁신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회혁신의 구조 내에서 각 영역별 특성과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국내 사회혁신 및 관련정책에 있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정책적 의미가 있다.

## II. 사회혁신론의 메타적 접근

### 1. 사회혁신의 등장배경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추구하고자 한 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sup>1)</sup> 유럽연합에서 제창한 ‘Society: The Endless Frontier’는 새로운 비전의 혁신체제론의 등장을 알렸다(Caracostas and Mulder, 1998).<sup>2)</sup> 이에 발맞추어 진화 경제학, 과학기술사회학, 그리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술 전환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혁의 움직임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송위진, 2013; Grin et al., 2010; Markard et al., 2012).

3세대 혁신이라 불리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사회난제로부터 출발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 교통 문제, 양극화 등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책 개입이나 소규모 이니셔티브와 같은 방안이 모색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도전과제(societal challenge)’, ‘지속적 해결과제(persistent problem)’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전제는 사회난제가 시스템 내에 내재되어 있으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1) 사회적 목표 지향의 혁신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발시킨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시대의 도래다(김왕동 외, 2014: 43).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CSD)는 지난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Rio+20」 회의에서 2015년 종료되는 유엔세천년개발목표(MDGs)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Brundtland, 1987). 전 세계적 정책의 중심이었던 ‘경제성장(economic)’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개발(social)’과 ‘환경보호(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이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을 의미한다(EU, 2012).

2) 이러한 제목은 미국 과학정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종전 후 미국의 과학연구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 보고서의 제목인 ‘과학: 그 끝없는 프런티어(Science: the Endless Frontier)’에 빗대어 만든 것이다. 유럽은 과학 대신 사회(society)를 전면에 내세우며 수요 중심, 사회 중심의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것이다(김왕동 외, 2014). 이에 따라 기후변화, 노령화, 전염병의 확산 등 새로운 사회적 도전과제를 위한 혁신 목표, 프로세스 등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Christensen et al., 2006).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기존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와 기술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체제로의 변환을 전제로 하는 노력이 갖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은 문제 해결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아 문제의 정의부터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도구로 인식되었던 과학기술이 ‘사회를 위한, 사회와 함께하는 과학(science for society, with society)’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Owen et al., 2012).

이렇듯 기술혁신의 사회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실험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혁신 논의로 이어졌다. 이때 사회혁신은 기업 중심의 산업 혹은 비즈니스 혁신과 구별된다. 기업의 혁신은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라는 동기로 유발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기업 조직의 활동을 통해 확산된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제품이나 공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혁신의 분야는 주로 사회문제에서 출발하여 유형화되는데 예를 들어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지역불균형, 사회 불평등, 보건의료와 같이 대개 기존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은 복잡하게 얽힌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혁신은 사회변화(social change)를 꾀하는 활동이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제도나 규칙, 조직운영방식 등의 아이디어가 제도화 되는 과정을 거친다(Mulgan et al., 2007). 따라서 사회혁신의 목표와 추진체계, 시스템, 주제, 평가 기준은 산업혁신과 다르게 구성된다.<sup>3)</sup>

## 2. 사회혁신론의 혁신체제별 맥락

본래 사회혁신 연구는 제3섹터라 불리는 비영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한해 이루어졌다(Westley and Antadze, 2010; Defourny and Nyssens, 2013). 이들은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community)에 집중해 지역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논

3) Mulgan은 예측 불가능한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위기, 정치위기,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 위기, 고령화, 경제적 불평등의 사회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며 이를 극복할 해결책은 사회혁신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천적 운동이 강조된 기존의 사회혁신 개념을 개인의 변화, 폭넓은 사회변화 운동, 조직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개념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개인은 사회혁신을 촉발하는 아이디어를 품은 혁신의 리더, 즉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로서의 개인을 뜻한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을 실행에 옮기고자 한다. 이것이 행위자 관점에서 사회변화 운동을 뜻한다면 이러한 움직임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면서 혁신을 확산시키는 구체적 프레임은 구조적 관점에서의 사회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의한 것이다. 이때의 사회혁신은 엄밀히 말해 사회자본, 공동체, 문화 등 ‘비기술적 요소 중심의 사회변화’를 뜻한다(Meadows, 1972; Howaldt and Schwarz, 2010 재인용).

그러나 최근 사회혁신은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공공,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인식되고 있다(Howaldt and Schwarz, 2010; Franz et al., 2012; Huddart, 2012). 이에 따라 비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과학기술을 포함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혁신론에서의 기술의 위상은 기술혁신과 다르게 해석된다. 즉 사회변화를 위한 수단의 개념으로 인식해 시민사회의 혁신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실험’을 강조하지만 이 때의 핵심은 ‘기술니치(technology niche)’가 아니라 ‘사회니치(social niche)’가 되는 것이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사회적 목표 지향 혁신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혁신이 행위자의 활동 및 사회제도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속성은 국가별 정치경제적 생산레짐(production regime)(Hall and Soskice, 2001)에 영향을 받는다. 즉 기존 산업구조, 정치행정체제등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행위자의 유형과 활동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며 그에 따른 정치, 경제, 문화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혁신체제의 성격도 다르다.

미국형으로 대표되는 자유시장경제 기반의 사회혁신체제는 주로 소셜벤처와 같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등장한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실험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이 관건이다(Moore and Westley, 2011; Huddart, 2012).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혁신은 주로 기업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sup>4)</sup> 한편 사회 조합주의적 경향이 짙은 유럽에서의 사회혁신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가장 중시한다. 다양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사회실험을 벌이는 ‘사회니치’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일어나는 사회혁신의 동학을 연구한다.<sup>5)</sup> 또한 이들의 사회혁신을 위한 정부혁신의 뒷받침을 주장한다(Lévesque, 2013).

이렇듯 사회혁신론은 각국의 혁신체제를 배경으로 각기 다른 이론적 틀을 다져가고 있다.

4) 마이클 포터는 최근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개념을 제시하며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경영 활동을 주장하고 있다(Porter and Kramer, 2011). 또한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는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 개념과 ‘기업가 정신’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Phills et al., 2008).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명크스쿨이 이끄는 혁신 정책 랩(Innovation Policy Lab)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사회적 기업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회혁신의 과정에 주목한다.

5) 유럽은 EU 연구개발자금(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을 기반으로 대규모 다국적 사회혁신 연구조직을 설립해 운영한다. 일례로 ‘진화적 사회 혁신연구(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heory: TRANSIT)’집단은 새로운 사회관계의 창출, 프레임 전환, 시민사회를 향한 권한위임이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한다. LIPSE(Learning from Innovation in Public sector Environment)의 경우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영역 혁신 연구를 주로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의 ‘관계’와 ‘실천’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변화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시각을 견지한다. 또한 결과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사회변화를 위한 혁신이 발현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모두 혁신으로 여긴다. 최종사용자와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간의 공동학습과 공동창조(co-creation) 활동은 사회변화를 위한 혁신이 발현되는 과정이자 그 자체가 사회의 점진적 혁신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Hubert, 2012; Pue et al., 2016).

### 3. 사회혁신론의 주요내용

사회혁신론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문제 해결의 새로운 해법을 사회혁신의 결과로 상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연구와(Mulgan, 2006; Murray et al., 2011) 결과보다 사회혁신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는 연구가 있다(Pue et al., 2016).<sup>6)</sup> 그러나 사회혁신의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사회변화임을 염두에 두었을 때 사회혁신의 분석대상은 그러한 변화를 일으킨 혁신 활동 과정으로 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사회혁신을 위한 활동과 사회변화의 인과관계를 밝혀 사회과학적 함의를 풍부하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사회혁신론의 주요 연구 내용을 사회혁신의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즉 다양한 행위자간 네트워크, 공동창조를 위한 실험, 네트워크 특징에 따른 사회혁신의 확산 방식, 제도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1) 다양한 행위자 네트워크와 ‘연결자(connector)’

사회혁신은 개인의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화로서의 사회혁신 네트워크가 기본이 되어 이루어진다. 여기서 개인은 사회혁신을 촉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혁신의 리더, 즉 앙트레프레너로서의 개인을 뜻한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는 시민사회 조직, 기업, 정부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따로 또 함께 노력한다. 즉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형태가 사회혁신의 기본이다.

사회혁신은 기존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방식으로도 창출되며 제품과 서비스의 창출뿐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의미부여 활동을 중시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6) Pue et al.(2016)은 사회혁신 연구의 분석 단위를 문제 해법 등의 성과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은 사회과학적 분석 단위로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회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good thing)을 내놓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도 존재하므로 사회혁신을 일반 혁신 연구의 분석 단위와 같이 혁신의 성과를 중심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혁신 연구가 사회혁신의 확대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행위자들의 연결’ 과 ‘새로운 의미 창출’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Tuomi, 2003; Mulgan et al., 2007). 아이디어의 구현과정은 다양한 행위자를 통해 이뤄지며 이때 이들이 맺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가 창출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Mulgan et al.(2007)은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벌이는 활동을 통해 ‘결합에 의한 차이 (connected difference)’ 로 개념화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혁신의 세 가지 특징을 강조한다. 우선, 사회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이나 혼합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는 분리되어 있던 개인과 집단, 기업, 국가가 새로운 사회적 결합을 만들어 내면서 사회혁신을 이뤄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는 조직, 부문, 학제 간 경계를 넘어 다 같이 참여하는 실험을 통해 구현된다. 셋째, 사회혁신은 분리되어 있던 개인과 집단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강력히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동원한다.

‘결합에 의한 차이’는 자연스레 혁신 활동을 위한 세부 요소를 연결 짓는 ‘연결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기술혁신과 달리 사회혁신은 혁신의 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해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는 것에 주목한다. 다양한 행위자의 연결과 상호작용이 사회혁신에 있어 성패를 좌우한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유럽의 경우 연결자는 사회혁신의 행위자가 다양하고 규모가 클수록 자연스레 공공영역이 역할을 맡는다(Lévesque, 2012; Bekker et al., 2013; Williamson, 2015; Tönurist et al., 2015; Schuurman and Tönurist, 2017).

## 2) 사회혁신의 원천과 동학

사회혁신은 국가 중심의 계층제적 차원을 넘는 혁신적인 수평적 네트워크가 중심이 된다.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더욱 민주화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한편 권한위임을 통해 다양한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를 넘어서는 여러 제도의 출현까지도 불러오며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Swyngedouw, 2005).<sup>7)</sup>

이러한 사회혁신의 발생과 동학에 관한 연구는 행위자 관점과 구조적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행위자 수준의 연구는 개인이나 사회적기업의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을 통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동기와 창의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시장의 혁신을 불러온다(Phills et al., 2008; Nicholls and Murdock, 2012; Pue et al., 2016). 시장혁신의 누적이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반면 구조적 관점에서는 국가의 권한위

7)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국가적 시민단체의 결집과 이를 통한 실천을 들 수 있다.



임의 강화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나 시스템의 등장과 같은 변화로 인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또 사회혁신을 통해 나타나는 조직이나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 변화를 연구하는 흐름도 존재한다(Hämäläinen and Heiskala, 2007; Bekkers et al., 2013; Lin and Chen, 2016).

한편 Cajasanta(2014)는 두 관점 모두 사회혁신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사회혁신은 행위자 개인의 활동만이 아닌 집합 행동(collective action)이 기반이 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다. 둘째, 사회혁신을 촉발시키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진지한 고려가 없이는 사회혁신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Novy and Leubolt, 2005). 그러므로 사회혁신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정확한 개념’, ‘행위자’, ‘제도·구조’, ‘사회 시스템’의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Cajasanta, 2014).

동시적 관점에서 행위자의 사회적 창의 전략은 제도의 변화를 불러오거나 일상생활의 루틴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화시켜나간다. 사회혁신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제도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혁신의 행위자가 공공영역일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변화가 일어난다. 만약 혁신의 행위자가 시민일 경우 사회혁신은 대중의 담론과 실천을 알리는 것을 통해 공공영역으로 확산되는 방식이다. 이런 행위자 중심의 사회혁신과 구조적인 사회혁신의 환류현상을 통해 사회 생태계의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 3) 혁신 실험을 통한 공동창조(co-creation)

사회혁신은 기술혁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과정으로 진행된다. 가장 큰 차이는 다양한 행위자 기반의 초학제 연구(transdisciplinary research)를 통한 ‘집단 실험(collective experimentation)’(Felt et al., 2016)과 반복적 수행을 통한 아이디어의 확장(scaling up)(Haxeltine et al., 2016a)이다. 이렇게 확장된 사회혁신은 우리사회의 정책 변화와 사회 규범 및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TEPSIE, 2014).

이때 혁신 실험은 사회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혁신 행위자의 공동창조 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위자들의 아이디어는 혁신 실험의 반복 실행을 통해 시행착오와 갈등해소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디어는 다듬어지고 사회적 동의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이 장기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사업화 모델로 적격인지, 그리고 입법화되거나 제도화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되고 추진된다. 이러한 과정이 완성된 후에야 기업의 사업화 혹은 다양한 사회혁신조직을 통한 혁신 보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혁신이 규모화 되고 확산되면서 비로소 공공 혹은 민간의 영역에서 사회나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법·제도 차원에서 새로운 시스템적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sup>8)</sup>

혁신 실험은 실제 생활에서 지식공유의 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용자간 암묵지적 통찰력이 상호 학습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Almirall and Wareham, 2011). Felt et al.(2016) 논의에 따르면 실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와 비전의 공유가 이뤄지고 공동의 기대를 지닌다. 과학기술의 의미가 사회적 삶과 질서와 맞물려 구성되는 집단적 상상, 즉 ‘사회기술적 상상(sociotechnical imaginaries)’ 이 구체화되는 것이다(Felt et al., 2016).<sup>9)</sup>

#### 4) 시민사회 참여방식에 따른 혁신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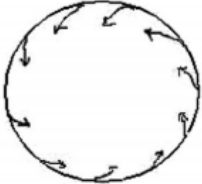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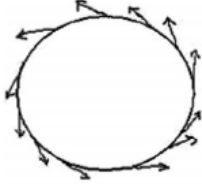
초학제적 공동 실험을 통해 이뤄진 혁신과정은 전통적인 학술연구의 선형적 지식이전과는 다르게 연구자와 혁신 참여자간 상호 이전의 궤적을 지닌다. 이때 나타나는 상호 학습은 집단 혁신을 통한 지식의 공진화 과정을 거쳐 일시적 인지 공유의 영역(temporary shared epistemic arena)을 만들게 된다(Felt et al., 2016). 이 영역은 지역, 실험 장소 등 특정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 이곳에서 연구자는 다른 행위자와 함께 인지에 대한 공유와 성찰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 지식과 권위에 대한 프레임을 수정하게 된다. Tuomi(2003)에 따르면 초학제 연구에서 나타나는 지식 공유 과정은 새로운 의미를 창출시키는 과정이다. 혁신실험은 과학자와 사회 영역의 파트너들 모두 기존의 의미와 다르게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혁신에 대한 해석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고, 기술이 갖는 의미에 따라 기술의 사회적 구성이 새로이 일어난다.

한편 Dal Fiore(2007)에 따르면 혁신의 지식 관리와 확산 방식은 혁신의 담지자로서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조직화 형태 즉, 최종사용자 네트워크인지 공동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둘은 소통방식, 사회심리학적 동형화 규칙(DiMaggio and Powell, 1983), 새로운 인공물의 해석 방식(Tuomi, 2003; von Hippel, 2005)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sup>10)</sup> 이러한 차별적 특성은

- 8) Murray et al.(2011)는 공동창조를 위한 사회 혁신의 단계를 ①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욕구를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문제 제기, 진단 및 분석을 통한 잠재적 해결책의 파악, ②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통찰력에 입각한 아이디어의 제안, ③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험의 반복 실시 및 프로토타입 제작, ④ 본격적인 아이디어 실천을 통한 혁신의 본격화와 평가, ⑤ 혁신 보급과 실행, ⑥ 성장과 확산, ⑦ 시스템 변화로 나누어 설명한다.
- 9) Felt et al.(2016)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해지는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 학자와 정부, NGO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초학제 연구의 지식이전 과정을 연구한 바 있다. 이들은 초학제 연구가 갖는 다양한 행위자간의 개방적 지식 교환 과정에 집중하여 기존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인 지식 생산 활동과 초학제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열린 지식 획득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 10) Dal Fiore(2007)가 밝히는 시민 참여 네트워크 형태에 따른 혁신 확산의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 공간의 차이에 따른 특성이다. 공동체와 네트워크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상반된 특성을 지닌다. 공동체의 원동력이 실제 속한 공간에서의 규칙과 역할에 순응하며 공유와 협력 등을 통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다면, 네트워크는 일시적이고(adhocracy) 사적인 공간에서의 확산과 다양성의 극대화에 있다. 둘째, 혁신 과정에서의 지식생산을 위한 의사소통 차이이다. 공동체 내부에서의 언어와 의사소통은 서로간의 생각을 재차 확인하고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지식생산이 동질화 되는 방식으로 혁신의 체화를 위한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반면 네트워크 내부의 의사소

최종사용자 네트워크와 공동체에 있어 혁신 확산 전략의 차이를 불러온다. 점진적 혁신의 확산을 위해서는 최종사용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평적 소통전략을 통해 빠르고 다양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융합적·급진적 혁신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기반의 수직적 소통전략을 통해 일상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 공동체와 최종사용자 네트워크 기반 혁신의 특성

구분	공동체(communities)	최종사용자 네트워크(end user network)
시각화		
혁신 공간	• 실제 소속된 삶의 공간	• 일시적·개인화된 공간
지식생산과정	• 확인적·설명적 소통 방식	• 창조적 소통 방식과 니즈결합
혁신의 확산방식	• 동질화(homogenization) • 심화(conservation)	• 분화(differentiation) • 진화(evolution)
확산 전략 활용 방식	• 융합적·급진적 혁신의 일상생활 체화 전략 시 활용 • 지역 혁신거버넌스 운영	• 점진적 혁신의 급진적·차별적 확산 전략시 활용 • 사회혁신 파일럿 실험 성과의 확대 및 확산

자료: Dal Fiore(2007)인용 및 수정

### 5) 제도적 유연성(institutions in flux)

사회혁신은 다양한 실험의 심화·확대·확장을 위해 제도적 유연성을 강조한다(Haxeltine et al., 2016a). 특히 Giddens의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대해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제도의 질서는 변하며, 성찰성에 기반을 둔 제도의 유연성을 강조한다(Haxeltine et al., 2016a). 이를 전제로 사회혁신 실험은 ‘시범적 규칙(proto-rules)’을 통해 개별 행위자와 조직간 및 집단 간 상호작용을 이루며 새로운 제도와 사회적 맥락을 만들어 나간다.<sup>11)</sup> 사회니치를 통한 반복적 실행과 학습은 새로운

통은 확산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경로가 창출되며 새로운 지식 생산을 수평적으로 발전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한다. 셋째, 혁신의 확산 방식이다. 지식생산과 학습의 맥락에서 공동체는 혁신의 의미가 공동체 맥락으로 특화되고, 유지되면서 공동체에 체화되는 형식을 취한다. 이와 달리 네트워크는 혁신이 확산될수록 일련의 경계 탐색형 학습(boundary-spanning learning)을 통한 차별성이 증가되고 새로운 결합이 일어나며 다양하게 진화된다. 공동체는 특화(specialization) 기반 혁신의 사회 담지자, 최종사용자 네트워크는 융합·급진·경로과파적 혁신의 담지자라고 할 수 있다.

11) 사회혁신 이니셔티브는 행위자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인 행위자간 네트워크와 집단 간 이니셔티브로 나누어 볼 수

제도적 구조화를 발생시키며 이것이 바로 사회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의 과정인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활동과 사회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진화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혁신의 행위자들은 혁신 활동을 통해 기존의 관행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키거나 수정하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실천은 사회의 제도적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며 궁극적으로 현재 사회가 지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즉 사회혁신을 이루기 위해 제도의 성찰적 모니터링을 통한 끊임없는 제도변화가 관건인 것이다(Giddens, 1984; Bos and Grin, 2008).

나아가 혁신체제의 설계자로서 국가는 생산 자원과 기술, 조직 효과성, 시장, 외부효과 등의 하부구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며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Hämäläinen and Heiskala, 2007). 이때 제도의 적응력은 경제 시스템의 성장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가 되므로 설계에 있어 하부구조의 균형과 상호작용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공공과 시장, 사회 영역 모두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설계자의 몫인 셈이다. 그러므로 더 나은 설계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와의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 III. 사회혁신론의 개념적 유형화

#### 1. 사회혁신 정의에 따른 유형화

##### 1) 혁신 목표에 따른 정의

사회혁신은 사실 굉장히 넓은 개념 중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와 ‘혁신’의 일반적 관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사회혁신에서의 ‘혁신’을 강조하여 본다면 일반 혁신의 분리처럼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혁신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의 차원에서 맥락특정적 혁신(context-specific innovation)과 시스템적 혁신(system innovation)으로 구분할 수

---

있으며 혁신활동의 동기의 시작점과 지속성을 위한 동기부여 방식, 문제의 해결정도 등이 달라지므로 분석에 주의가 필요하다(Haxeltine et al., 2016b). 예를 들면 친환경 슬로우 푸드를 지향하는 개별행위자 네트워크는 개인의 가치관이 유사하고, 삶의 방식도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행위자 집단이다. 반면에 지역별 친환경 슬로우 푸드 지향 공동체가 모인다면 개인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각 지역의 제도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 등의 제도적 가치관이 더 들어간 경우에는 개인의 가치관은 유사하더라도 지지하는 제도적 맥락은 다를 것이며, 이것이 지역의 문제와 혼합되어 나타날 때는 여러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는 지역 맥락 내에서도 갈등을 빚는다. 이 문제는 후에 사회혁신 과정의 주된 참여자가 개인으로서의 최종사용자인지, 집단으로서의 시민사회 영역인지에 대한 구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된다.

있다. 점진적이고 특정 맥락의 사회혁신은 도시나 마을과 같이 국지적 배경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지역의 맥락에 맞게 점진적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sup>12)</sup> 한편 시스템의 변화를 이끄는 사회혁신은 불연속적이고 파괴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이때 사회혁신은 사회의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거시적 사회혁신을 뜻하며 많은 학자들이 칭하는 광의의 사회혁신을 뜻한다.<sup>13)</sup>

한편 사회혁신의 ‘사회’에 주목하여 본다면 크게 경제 혁신(economic innovation)과 공동체 혁신(community innovation)을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여 사회혁신의 범주를 나눌 수 있다. 우선 사회혁신을 경제혁신과 공동체 혁신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회혁신은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어떤 사회 시스템의 루틴, 자원, 권한, 신념 등의 변화를 뜻한다. 사회혁신은 경제적인 개념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정책 수단이 되기도 하고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혁신의 행위자 네트워크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조적 네트워크와 중첩되며 이미 사회 구조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Mulgan et al., 2007; Scott, 2007; Westley, 2008).

둘째, 경제 혁신과 사회혁신을 구분지어 주로 공동체 혁신을 뜻하는 협의의 사회혁신 정의도 존재한다. 주요 목적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두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통해 개발되고 확산되는 혁신을 사회혁신의 범주로 삼아 경제 혁신과 구분한다. 이러한 정의는 좀 더 공동체 중심의 비경제적 행위자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비영리성을 극대화시킨다(Mulgan et al., 2007; Katarsis, 2009). 이러한 동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 연구도 이에 해당한다.

셋째, 경제 혁신과 공동체 혁신의 교집합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회혁신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때 혁신은 다양한 사회 요소들의 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결과물을 뜻한다.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파트너십을 맺어 벌이는 일련의 사업이 한 예이다(Australian Social Innovation Exchange, 2008).

마지막으로, 사회 기저에 사회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때 사회혁신의 결과로 창출된 가치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띤다. 마치 공공영역에서 경제 혁신을 위해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념으로 활용된다. 이때 사회혁신은 특정 행위자의 행동 결과라기보다 전체적인 활동의 결과이다(Christensen et al., 2006; Phills et al., 2008).

12) 대표적인 학자로 Mulgan et al.(2007)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맥락적 해결책과 이를 위한 지역 행위자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혁신은 주로 도시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중 행위자 노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Centre for Social Innovation, 2010).

13) 대표적인 예로 Phills et al.(2008)은 스펙터의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추구하는 혁신임을 설명한다. 이와 비슷하게 Pue et al.(2016)도 사회적 기업가의 활동이 중요한 사회혁신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또한 Porter and Kramer(2011)가 주장하는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 등도 여기에 속한다.

## 2) 사회혁신의 층위에 따른 정의

사회혁신을 분석하는 단위는 굉장히 다양하다. 크게 개인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되기도 하고(Cajaiba-Santana, 2014), 사회혁신의 대상에 따른 분류도 존재한다(Young Foundation, 2010; TEPSIE, 2014). 이렇듯 일반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영역별 맥락에 따라 그 정의가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말로 유사하게 사회혁신으로 통용되는 ‘social’과 ‘societal’ 역시 혁신의 분석 대상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Cova and Svanfeld(1993)에 따르면 ‘social’은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사회혁신의 개념을 뜻하며, ‘societal’은 혁신의 결과가 지속성을 띌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가차원의 공동의 노력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sup>14)</sup>

즉 사회혁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언급할 때 사용되지만 사회혁신의 구조적 관점을 강조하는 societal 혁신은 집단으로서의 사회 혹은 그들의 활동과 관습 전반을 뜻하는 사회 전체 구조의 변화를 뜻하며, social 중심의 혁신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들 간 관계에 좀 더 집중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Lin and Chen, 2016).

주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의 경우 ‘societal challeng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혁신정책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사회혁신정책은 보건, 의료, 교통, ICT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으로 기반 구축, 규제 개혁, 공공 개혁, 인센티브 제공 등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Rotmans, 2005; Hämäläinen and Heiskala, 2007; BEPA, 2010; Bekker et al., 2013; Lehtola and Stähle, 2014; Lin and Chen, 2016). 한편 TRANSIT이나 LIPSE와 같은 EU 연구 집단은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혁신, 공공혁신, 지속가능한 시스템 변환 논의를 연계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비해 중범위 수준의 사회혁신 연구는 시민의 권한위임을 강조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계의 형성 및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social 혁신’ 용어를 쓰는 것으로 해석된다. Nesta, Young Innovation, 캐나다 혁신센터, 덴마크 혁신센터(MindLab) 등 유럽의 여러 사회혁신 연구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관련 행위자와 인프라 등 주로 사회혁신의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책적 지원 방향을 연구하기도 한다(Mulgan et al., 2007; Young Foundation, 2010; TEPSIE, 2014). 한편 사회적 경제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이에 속하며 이들은 사회적 경제 영역 활성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 혁신과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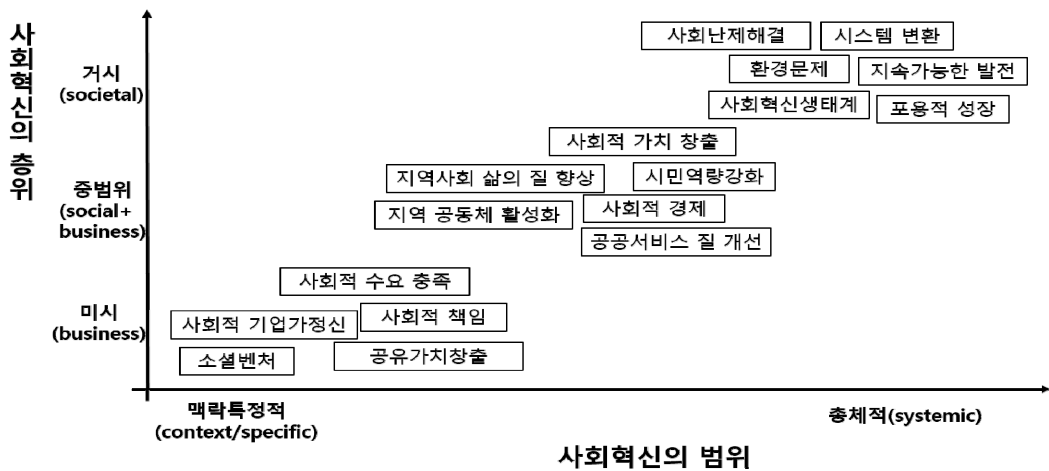
14) Rotmans(2005)의 경우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 노력이 동반되는 것을 ‘societal 혁신’이라 칭하며 시스템 전환 관리의 방법론을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Lehtola and Stähle(2014)은 societal 혁신은 사회 전체의 변화의 구성개념으로서 개방형 혁신, 혁신 생태계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즉 사회전체 차원의 이해관계자와 조직적 측면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기업가 정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연구한다(Westley and Antadze, 2010; Franz et al., 2012; Nicholls and Murdock, 2012; Defourny and Nyssens, 2013).

가장 미시적 접근으로서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LME) 중심의 학계에서는 주로 'social 혁신'의 개념을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여 그에 따른 새로운 아이디어와 산출물, 서비스를 강조한다(Christensen et al., 2006; Phills et al., 2008; Salamon et al., 2010; Porter and Kramer, 2011; Pue et al., 2016).

이렇듯 사회혁신론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정립되고 있으며 각 부문 연구자들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진행된 혁신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혁신 공간의 층위를 기준으로 구분지어 본다면 좀 더 입체적인 사회혁신의 이론지형을 그려볼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가로축은 사회혁신의 구체적 목표를 중심으로 맥락특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사회혁신에서부터 사회전체 시스템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혁신에 이르기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로축은 사회혁신의 공간적 층위를 나타내며 미시 수준의 비즈니스 혁신부터 거시 수준의 사회혁신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맥락특정적인 범위에서 미시 수준으로 일어나는 사회혁신은 주로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즈니스 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유가치창출 노력을 통해 사회 수요를 충족시키고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범위 수준의 사회혁신은 사회 목표를 위해 작동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특히 중범위 수준의 사회혁신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새로운 서비스 전달방식을 논의한다. 사회적 경제영역의 많은 연구가 이 수준에 속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요시 여긴다. 이를 위해 시민역량 강화 방식과 지역 혁신 거버넌스와 공공서비스 혁신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전체적인 범위에서 거시 수준으로 일어나는 사회혁신은 사회난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시스템 변환과 사회혁신 생태계 등을 논하며 국가 혹은 글로벌 차원의 연구와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거시 수준의 사회혁신 연구는 개별적인 사회혁신보다는 사회혁신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며 환경, 보건, 노동, 복지, 정치행정 등 다양한 체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회혁신체제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 각 수준에 따른 주제어는 정서화(2016)에 정리된 연구자별 정의를 따름  
(그림 1) 사회혁신론의 정의에 따른 유형화

## 2. 사회혁신 영역에 따른 유형화

이제까지 살펴본 사회혁신의 이론 지형을 (그림 1)처럼 유형화하면 사회혁신이 기존의 사회 구조에 덧입혀져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보건대 공공,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혁신이 주로 이뤄지는 영역별로도 사회혁신을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회혁신의 목표와 범위뿐 아니라 영역별 유형화를 통해 혁신 주체 간 특성과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정책적 함의를 더욱 끌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증으로 Web of Science(Wo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서지분석기법 (bibliometrics)을 활용해 사회혁신 관련 분야의 문헌들을 분석하였다.<sup>15)</sup> 사용된 WoS 데이터는 2017년 10월 22일 기준으로 1900년부터 2017년 사이의 문헌들이다. 사회혁신 이론 지형을 최대한 넓게 보고자 아주 보편적인 용어인 ‘social innovation’으로 제목과 초록, 키워드에서 검색을 하였다. 검색된 문헌의 기초분석은 WoS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를 활용했으며 VOSviewer를 사용해 주제어간 네트워크 시각화와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sup>16)</sup>

이제까지 총 729건의 학술문헌이 출판되었으며 사회혁신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논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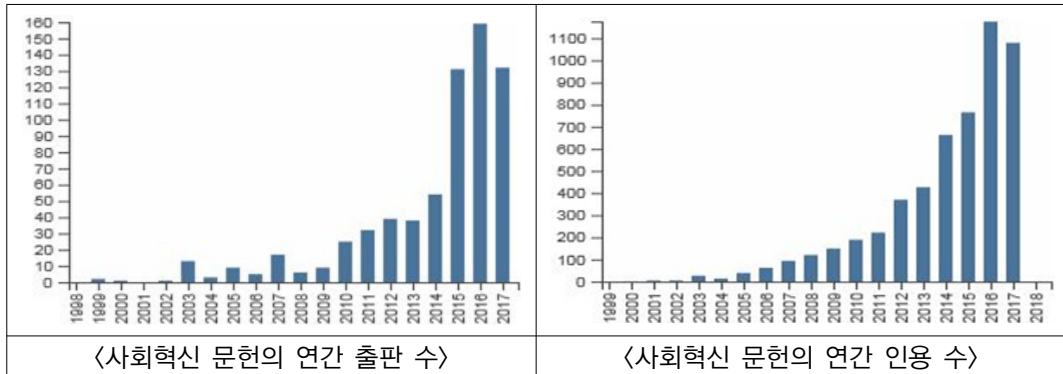
15) Web of Science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꼽히며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 & HCI(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 ESCI(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의 서지정보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6) VOSviewer는 서지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네덜란드의 Leiden 대학에서 무료로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다. WoS와 Scopus 등 유명 데이터베이스와 호환성이 높고 군집화에 탁월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등장한 시기는 대략 1967년도부터이다. 출판 수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2010년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n=25) 2015년부터 관련 논문이 급증하였음을 볼 수 있다(n=131). 이들의 총 인용횟수는 5,466건으로 2012년부터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이며(n=400) 2016년부터 1,200건 이상의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사회혁신 문헌 출판 수 및 인용 추이



자료: WoS, 'social innovation' 문헌 검색 보고서(2017년 10월 22일 기준)

〈표 3〉을 보면 사회혁신 연구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즈니스 분야를 비롯한 사회과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술분야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경제 분야가 전체의 28.9%로 가장 높은 출판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로

〈표 3〉 사회혁신 문헌의 국가 및 학술분야별 출판 수

연번	국가	출판 수(%)	학술분야	출판 수(%)
1	미국	150(20.6)	비즈니스 경제(Business Economics)	211(28.9)
2	영국	121(16.6)	환경 과학 생태학(Environmental Science Ecology)	96(13.2)
3	스페인	77(10.6)	행정(Public Administration)	86(9.1)
4	캐나다	60(8.2)	기타 사회과학(Social Science other topics)	66(9.1)
5	이탈리아	55(7.5)	사회학(Sociology)	49(6.7)
6	독일	51(7.0)	심리학(Psychology)	43(5.9)
7	네덜란드	35(4.8)	사회복지학(Social Work)	42(5.8)
8	호주	34(4.7)	도시연구(Urban Studies)	37(5.1)
9	프랑스	28(3.8)	기타 과학기술분야(Science Technology other topics)	36(4.9)
10	스웨덴	22(3.0)	공학(Engineering)	34(4.7)

자료: WoS, 'social innovation' 문헌 검색 보고서(2017년 10월 22일 기준)

환경 분야, 행정,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도시, 공학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혁신의 주제어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 이론지형의 구조를 확인하고자 주제어 네트워크의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sup>17)</sup> 이를 시각화한 (그림 2)를 살펴보면 사회혁신 문헌의 주요 주제어로 구성된 이론지형도는 거버넌스, 정책, 사회적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조직, 프레임워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어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영역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크게 공공영역, 시장영역, 사회적 경제 영역의 혁신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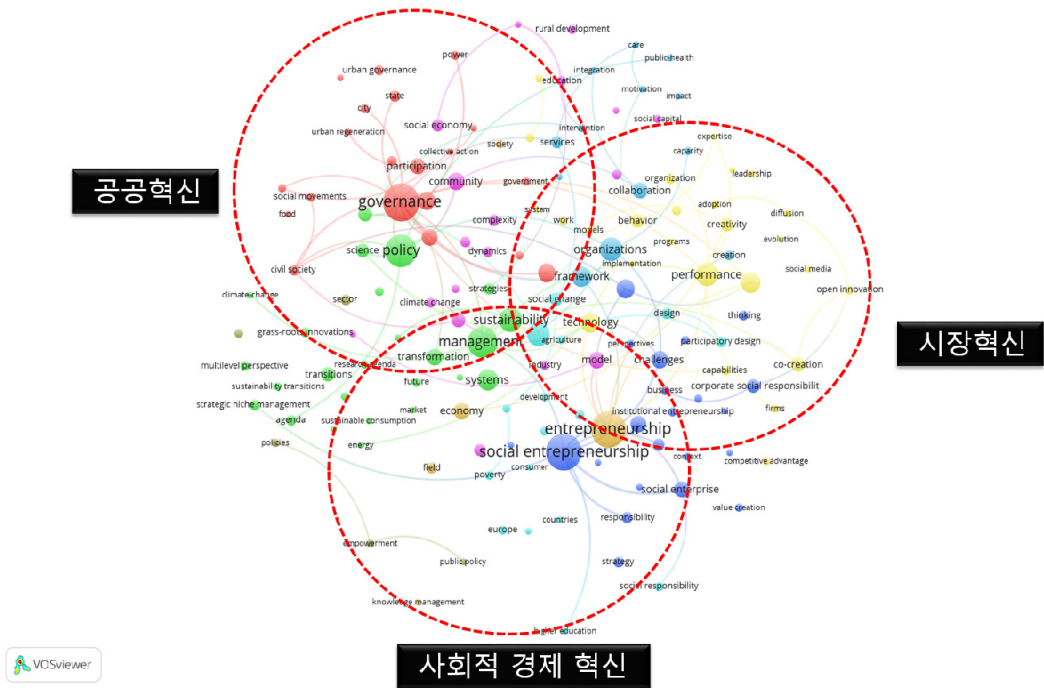
공공영역의 혁신은 크게 ‘거버넌스’와 ‘정책’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버넌스는 다시 사회운동(social movement),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국가와 정부, 시민사회, 참여 등의 주제어와 공동체, 집단지성, 사회적 경제, 복잡성, 동학(dynamics)등의 주제어로 군집화 되어 있다. 이는 공공영역에 있어 사회혁신의 관점이 시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거버넌스 혁신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책은 지속가능성과 관리, 변환, 시스템,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성, 다수준 관점(multi-level perspective) 등 혁신체제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변환을 추구하는 정책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시장혁신은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기술, 조직, 창의성, 창조, 디자인 싱킹, 적용, 협업, 사회적 책임, 공동 창조, 개방형 혁신, 사회적 환경, 확산, 리더십 등의 주제어로 군집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업의 혁신 방법론이 최종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의 기법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협업에 따른 창의성과 조직 혁신에 두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기업, 가치창조, 책임성, 전략, 사회적 책임, 고등 교육, 빈곤 등의 주제어로 군집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조금 떨어진 국지 네트워크인 공공정책, 권한위임, 지식관리 등의 주제어와도 비교적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이는 중간의 유럽이라는 주제어와 함께 유럽에서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공공영역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의 교집합에는 풀뿌리 혁신(grass-root innovation), 기후변화, 전략적 니치관리, 변환(transformation), 사회변화, 공공보건의료(public health), 통합, 사회자본 등의 주제어가 자리 잡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 포용적 혁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에 두며 다양한 도전에 맞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유형(예: 소셜벤처)의 활동에 대한 묘사로 볼 수 있다.

17) VOSviewer는 주제어의 동시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연관성을 Kullback-Leibler 거리를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표현해준다. 또한 서로 연관성이 있는 주제어들을 군집화 후 동시 출현 빈도의 정도에 따라 노드의 위치를 달리해 시각화한다(van Eck and Waltman, 2009). 이때 노드의 크기는 그 출현 빈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된다.



(그림 2) 사회혁신론의 영역별 세부 주제어 군집 시각화

### 3. 사회혁신체제 관점에서의 재해석

이제까지 사회혁신론의 메타 접근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에서의 시민참여가 사회혁신으로 확장된 흐름, 사회적 경제 영역과 시장영역에서 각기 논의 되는 혁신의 흐름들이 만나 현재의 사회혁신 구조의 기초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원으로 사회혁신론은 크게 혁신 일반론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문헌분석을 통해 밝힌 것이다. 또한 개념적 유형화를 통해 사회혁신의 목표, 층위, 영역별 구조를 밝힘으로써 사회혁신체제의 골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를 중심으로 앞서 설명한 사회혁신의 특성과 결합하여 보면 사회혁신체제 관점에서 영역별 특성과 역할의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사회혁신이 지닌 혁신 일반론적 특성과 사회학적 특성을 종합하면 사회혁신체제의 기본적인 요소의 파악이 가능하다. 사회혁신은 혁신 일반론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 혁신의 목표, 혁신의 확산 범위, 영역별 혁신의 분류와 같은 세부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영역별 주요 주체 분류가 가능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혁신은 추구하는 목표와 혁신의 범위에 따라 거시 수준의 혁신체제연구, 중범위 수준의 지역과 공동체

활성화 연구, 미시 수준의 기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를 다시 영역별로 구분지어보면 공공혁신, 시장혁신, 사회적 경제혁신으로 세분화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영역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세 영역 모두 혁신의 기저에는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으로의 변환, 삶의 질 향상, 포용적 성장이라는 문제의식 속에 사회혁신이라는 통합된 테마(theme)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기술혁신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혁신으로 혁신의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영역별 혁신의 교집합이 형성되고 있으며 공공, 시장, 사회적 경제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면서 영역 간 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첩공간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국가 내 산업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 국가혁신체제, 복지체제 등의 유제 속에 그 넓이가 정해지며 사회혁신 네트워크의 확장은 기존체제의 경로의존성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국의 사회혁신의 흐름과 혁신체제의 이해는 사회 환경(milieu)의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혁신론의 ‘사회학적’ 구조인 셈이다.

둘째, 공공, 시장, 사회적 경제 영역 전체에 사회혁신의 방식이 도입되고 있지만 영역별 주요 역할이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역 간 중첩공간이 존재함에 따라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주체 간 대략의 역할 구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혁신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허락한다.

시장영역은 공급자 위주의 기술혁신에서 벗어나 최종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며 이들 간 협업의 결과로 개발되는 솔루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확대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불러오며 시장실패의 교정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제혁신을 불러오며 공공과 시장을 넘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사회혁신의 구조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공영역은 지역차원과 국가차원으로 나뉘어 설명되는데 우선 지역차원은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활발했다. 이는 지역 구성원과의 거버넌스 혁신과 그에 따른 공공 서비스 혁신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이때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은 거버넌스 혁신뿐 아니라 공동체 혁신까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국가차원은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는 수요지향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자체의 혁신도 포함되며 이때 정부혁신은 기존과 달리 사회변화를 위한 ‘제도적 유연성’이 보장되고 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찰적 모니터링’이 강조된다.

〈표 4〉 사회혁신체제 내 주체별 특성과 역할

	시장영역	사회적 경제영역	공공영역
주요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기업가정신)</li> <li>소셜벤처(사회적 기업가정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li> <li>협동조합, 마을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정부</li> <li>중앙정부</li> </ul>
시민사회 참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사용자 네트워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사용자 네트워크</li> <li>공동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li> <li>공동체연합(국가차원)</li> </ul>
혁신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적·개별적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된 삶의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된 삶의 공간</li> </ul>
네트워크 연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캐피털</li> <li>소셜 임팩트 투자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간지원조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정부</li> </ul>
혁신 확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자 니즈 발굴/충족</li> <li>아이디어 다각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자 니즈 발굴/충족</li> <li>소통과 동질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니즈 충족</li> <li>소통과 동질화</li> </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사회적 책임</li> <li>사회문제 솔루션</li> <li>제품/서비스 혁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서비스 혁신 (복지사각지대 발굴)</li> <li>공공서비스 혁신 (공공서비스 질 개선)</li> <li>공동체 혁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혁신</li> <li>공공서비스 혁신 (시민 주도 정책 설계)</li> <li>거버넌스 혁신 (협력적 거버넌스)</li> <li>국가시스템혁신</li> </ul>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서비스 개발</li> <li>사회문제솔루션개발 (사회적 경제와 교집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서비스 개발</li> <li>혁신서비스 전달 (공공영역과의 교집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연한 제도 설계</li> <li>협력적 거버넌스 운영</li> <li>혁신생태계 지원 (네트워크 조정)</li> </ul>

\* 소셜벤처도 크게 보면 사회적 기업의 범주이긴 하나 벤처 특성이 강하고 국내법상 사회적기업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장영역으로 간주함

#### IV. 결론 및 함의

이 글은 사회혁신 연구를 메타적으로 접근해 전 세계에 확산 중인 사회혁신의 이론지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또한 사회혁신의 개념과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화를 시도하여 이를 사회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사회혁신 및 관련정책에 있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연구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술연구나 혁신 활동에 있어 사회혁신은 혁신 일반론적 성격과 사회학적인 성격을 동시에 품고 있으므로 이를 편향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혁신은 실험적 요소가 강하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공동의 결정과 생산을 이루는 실험방식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돌파구(breakthrough)를 마련함과 동시에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기술 중심이 아닌 사회 구성원 중심의 ‘사회니치’가 핵심이다.

그러므로 권한위임을 통해 시민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수록 직면한 사회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Mulgan et al., 2007; Hubert, 2012). 많은 시민들이 수동적 관찰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변화할 때 의미 있는 사회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이다(희망제작소, 2008).

이때 시민사회의 참여방식에 따라 혁신실험에서 지식생산 방식이나 혁신 확산전략이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혁신은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고 협업하는 과정이 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사회혁신 성과 분석 시 기술뿐 아니라 혁신 네트워크 방식, 연결자, 혁신 확산방식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사회혁신은 이러한 크고 작은 실험의 누적으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역간 적절한 역할이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혁신 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의 경우 기존의 비영리섹터가 가진 성격과 기술혁신이 결합되면서 시장과 정부의 중첩공간에서 풀뿌리 사회혁신으로 혁신지형의 변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시민의 활동이 ‘소셜벤처’ 혹은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시장영역의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사회혁신정책을 설계 시 주요한 주제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국가 중심의 혁신체제가 작동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분석의 결과처럼 정부는 사회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수준과 국가 수준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지역 수준의 노력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과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과의 협업을 통해 수요지향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을 적절히 활용해 사회적 경제영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 수준에서는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제도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좀 더 국민과 협업이 가능한 형태로의 조직혁신을 꾀해야 할 것이며 혁신 네트워크 간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공리더십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전처럼 전부 정부가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목표와 범위에 따라 다양한 혁신 행위자와의 협업을 펼치는 것이 사회혁신에 훨씬 유리한 것이다.

결국 공공영역은 사회혁신 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혁신체제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체제에서 중요한 역할로 여겨지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넘어 사회혁신체제의 네트워크 촉진자로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설계, 중개, 조정과 같은 혁신의 ‘연결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왕동·박미영·장영배·송위진 (2014),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송위진 (2013), “사회·기술시스템론과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술혁신학회지」, 16(1): 156-175.
- 정서화 (2016), 「사회목표 지향 공공연구개발 모델 연구 : 사회혁신 구조의 형성과 국가 역할의 진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희망제작소 (2008), Mulgan interview. <http://www.makehope.org>(2017. 2. 7 접근).
- Almirall, E. and Wareham, J. (2011), “Living Labs: arbiters of mid-and ground-level innovation”,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3(1): 87-102.
- Australian Social Innovation Exchange (2008), *Social Innovation at the Heart of Australi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submission to Review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ystem, April.
- Bekkers, V. J. J. M., Tummers, L.G. and Voorberg, W.H. (2013), *From public innovation to social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A literature review of relevant drivers and barriers*, Rotterdam: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 BEPA. (2010), *Empowering people, driving change: Social innovation in the European Union*, 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ors (BEPA), Available online: [http://ec.europa.eu/bepa/pdf/publications\\_pdf/social\\_innovation.pdf](http://ec.europa.eu/bepa/pdf/publications_pdf/social_innovation.pdf).
- Bos, B. and Grin, J. (2008), “‘Doing’ Reflexive Modernization in Pig Husbandry The Hard Work of Changing the Course of a River”,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33(4): 480-507.
- Brundtland, G. H. (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United Nations.
- Cajaiba-Santana, G. (2014), “Social innovation: Moving the field forward. A conceptual framework”,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82: 42-51.
- Caracostas, P., and Mulder, U. (1998), *Society, The Endless Frontier: a European vision of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ies for the 21st Century*, European Commission.
- Centre for Social Innovation (2010), *Social Innovation*, Government of Canada, <http://socialinnovation.ca/about/social-innovation>.
- Christensen, C. M., Baumann, H., Ruggles, R. and Sadtler, T. M. (2006), “Disruptive

- innovation for social change”, *Harvard business review*, 84: 94-101.
- Cova, B. and Svanfeldt, C. (1993), “Societal innovations and the postmodern aestheticization of everyday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10(3): 297-310.
- Dal Fiore, F. (2007), “Communities versus networks: The implications on innovation and social chang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7): 857-866.
- Defourny, J. and Nyssens, M. (2013), “Social Innovation,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What Can the European Debate Tell Us”, In Moulaert, F., MacCallum, D., Mehmood, A. and Hamdouch, A.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n Social Innovation: Collective Action, Social Learning and Transdisciplinary Research*, Cheltenham: Edward Elgar, pp. 40-52.
- DiMaggio, P. and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Collective rationality and institutional isomorphism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 EU. (2012),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European Union
- Felt, U., Igelsböck, J., Schikowitz, A. and Völker, T. (2016), “Transdisciplinary sustainability research in practice: between imaginaries of collective experimentation and entrenched academic value orders”,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41(4): 732-761.
- Franz, H. W., Hochgerner, J. and Howaldt, J. (2012), “Challenge social innovation: An introduction”, In *Challenge Social Innovation: Potentials for business, social Entrepreneurship, Welfare and Civil Society*, Springer Berlin Heidelberg, pp. 1-16.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ory of Structu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in, J., Rotmans, J. and Schot, J. (2010), *Trans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Long Term Transformative Change*, NY, London: Routledge.
- Hall, P. A. and Soskice, D. W.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ämäläinen, T. and Heiskala, R. (2007), *Social innova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making sense of structural adjustment processes in industrial sectors, regions, and societies*, Cheltenham: Edward Elgar.
- Haxeltine, A., Avelino, F., Pel, B., Dumitru, A., Kemp, R., Longhurst, N., Chilvers, J.



- and Wittmayer, J. M. (2016a), *A frame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RANSIT Working Paper #5, TRANSIT: EU SSH.2013.3.2-1 Grant agreement no: 613169.
- Haxeltine A., J rgensen, M. S., Pel, B., Dumitru, A., Avelino, F., Bauler, T., Lema Blanco, I., Chilvers, J., Cipolla, C., Dorland, J., Elle, M., Garido, S., Kemp, R., Kunze, I., Longhurst, N., Pataki, G., Rach, S., Renema, J., Ruijsink, S., Strasser, T., Tawakol, D., Weaver, P. and Wittmayer J. M. (2016b), *On the agency and dynamics of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RANSIT working paper #7, TRANSIT: EU SSH.2013.3.2-1 Grant agreement no: 613169.
- Howaldt, J. and Schwarz, M. (2010), *Social Innovation: Concepts, Research Fields and International Trends*, Sozialforschungsstelle Dortmund.
- Hubert, A. (2012), "Foreword I. Challenge Social Innovation", In Franz, H. W., Hochgerner, J. and Howaldt J. (Eds.), *Challenge Social Innovation: Potentials for Business, Social Entrepreneurship, Welfare and Civil Society*, Heidelberg: Springer, pp. v-x.
- Huddart, S. (2012), "Renewing the Future: Social Innovation Systems, Sector Shift, and Innoweave",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2(7): 5-9.
- Katarsis. (2009), *Deliverable 4 – DISSEM, WP4 Social Innovation (Integration Exercise)*.
- Lévesque, B. (2013), "Social innovation in governance and public management systems: toward a new paradigm", In Moulaert, F., MacCallum, D., Mehmood, A. and Hamdouch, A.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n Social Innovation: Collective Action, Social Learning and Transdisciplinary Research*, Cheltenham: Edward Elgar, pp. 23-39.
- Lehtola, V. V. and Ståhle, P. (2014), "Societal innovation at the interface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Innov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27(2): 152-174.
- Lin, C. Y. Y. and Chen, J. (2016), "Definition and Comparison of Societal Innovation and Social Innovation", In Lin, C., Yeh-Yun, C. and Chen, J.(Eds.), *The Impact of Societal and Social Innovation*, Singapore: Springer, pp. 5-17.
- Markard, J., Raven, R. and Truffer, B. (2012), "Sustainability transitions: An emerging field of research and its prospects", *Research Policy*, 41(6): 955-967.
- Meadows, Dennis (1972): *Die Grenzen des Wachstums. Bericht des Club of Rome zur*

- Lage der Menschheit*,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 Moore, M. L. and Westley, F. (2011), "Surmountable chasms: networks and social innovation for resilient systems", *Ecology and society*, 16(1): 5.
- Mulgan, G. (2006), "The process of social innovation", *innovations*, 1(2): 145-162.
- Mulgan, G., Tucker, S., Ali, R. and Sanders, B. (2007), *Social Innovation: What it Is, Why it Matters and How it Can Be Accelerated*, Oxford: Skoll Centre for Social Entrepreneurship Working Paper.
- Murray, R., Caulier-Grice, J. and Mulgan, G. (2011), *The open book of social innovation*, The Young Foundation.
- Nicholls, A. and Murdock, A. (2012), "The Nature of Social Innovation", In *Social Innova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pp. 1-30.
- Novy, A. and Leubolt, B. (2005), "Participatory budgeting in Porto Alegre: social innovation and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of state and civil society", *Urban studies*, 42(11): 2023-2036.
- Owen, R., Macnaghten, P. and Stilgoe, J. (2012),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From science in society to science for society, with society", *Science and Public Policy*, 39(6): 751-760.
- Phills, J. A., Deiglmeier, K. and Miller, D. T. (2008), "Rediscovering social innova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6(4): 34-43.
- Porter, M. E. and Kramer, M. R. (2011),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 1-12.
- Pue, K., Vandergeest, C. and Breznitz, D. (2016), *Toward a Theory of Social Innovation*, Innovation Policy White Paper series,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University of Toronto.
- Rotmans, J. (2005), *Societal innovation: between dream and reality lies complexity. Inaugural Speech*,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 Salamon, L. M., Geller, S. L. and Mengel, K. L. (2010), "Nonprofits, innovation, and performance measurement: Separating fact from fiction", *Communiqué*, 17(1): 1-23.
- Schuurman, D. and Tönurist, P. (2017),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of Living Labs and Innovation Lab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7(1): 7-14.

- Scott, R. (2007), "Prefatory chapter: institutions and social innovation" In Hämäläinen, T.J., Heiskala, R. (Eds.), *Social Innova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heltenham: Edward Elgar, pp. viii-xxi.
- Swyngedouw, E. (2005), "Governance innovation and the citizen: the Janus face of governance-beyond-the-state", *Urban studies*, 42(11): 1991-2006.
- TEPSIE (2014), *Social Innovation Theory and Research: A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TEPSIE*, A deliverable of the project: "The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s for building social innovation in Europe" (TEPSIE), European Commission –7th Framework Programme,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DG Research.
- Tõnurist, P., Kattel, R. and Lember, V. (2015), *Discovering innovation labs in the public sector. The Other Canon, Foundation and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 Working Papers in Technology Governance and Economic Dynamics*, TUT Ragnar Nurkse School of Innovation and Governance.
- Tuomi, I. (2003), *Networks of innov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Eck, N. J. and Waltman, L. (2009), "How to normalize cooccurrence data? An analysis of some well-known similarity measur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0(8): 1635-1651.
- von Hippel, E. (2005), *Democratizing Innova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Westley, F. (2008), *The social innovation dynamic*, SiG@ Waterloo.
- Westley, F. and Antadze, N. (2010), "Making a difference: Strategies for scaling social innovation for greater impact", *Innovation Journal*, 15(2): 1-19.
- Williamson, B. (2015), *Testing Governance: The Laboratory Lives and Methods of Policy Innovation Labs*, Working Paper. Stirling: University of Stirling.
- Young Foundation (2010), *Study on Social Innovation*. European Union.

### 정서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에서 초청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공공혁신, 사회혁신 생태계, 협력적 거버넌스 등이다.